

KIA, 투·타 완벽 호흡... 시즌도 오늘만 같아라

브룩스, 4.2이닝 5K 무실점 완벽투...시범경기 NC전 7-0 승리
연습경기보다 구위·제구 위력적...박준표·이승재 등 불펜 호투 릴레이
이재학 상대 이틀 연속 불방망이...포수 김민식·이정훈 타격전도 후끈

역시 에이스, 브룩스였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22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4.2이닝 5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박민우-이명기-나성범-양의지-알테어-강진성으로 이어진 NC 정에 타선을 상대한 브룩스는 72개의 공으로 14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으며, 시범경기 첫 등판을 끝냈다.
앞선 연습경기 때보다 구위와 제구 모두 좋아졌지만 '육에 티'는 있었다. 2회 양의지와 강진성을 상대로 몸에 맞는 볼 2개를 허용하면서 주자를 내보냈다.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실점은 남기지 않았다.
브룩스는 1회말 선두타자 박민우를 1루 땅볼로 처리한 뒤 2루수 땅볼로 이명기를 잡아냈다. 나성범은 유격수 땅볼로 돌려세우면서 삼자범퇴로 스타트를 끊었다.
2회말 1분 2스트라이크에서 브룩스가 던진 4구째 공이 양의지의 팔에 맞으면서 선두타자가 출루했다.
이어 알테어가 끈질긴 승부로 브룩스를 괴롭혔다. 브룩스는 8구째 스탠딩 삼진을 잡았지만, 다시 1분 2스트라이크에서 강진성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했다.
이내 평정심을 찾은 브룩스가 박준영을 상대로 3

루 땅볼을 유도했고, 주자 강진성이 2루에서 아웃했다.
그리고 포수 김민식이 도루를 시도한 박준영의 발을 묶어주면서 실점 없이 2회가 정리됐다.
3회를 끝내는 데 필요한 공은 10개였다.
김준영을 4구째 우익수 플라이로 잡았고, 김태군에게는 2개의 공을 던져 유격수 땅볼을 만들었다. 이어 박민우에게 초구 불은 던졌지만 3개의 스트라이크를 연달아 쏘으면서 삼진을 뽑아냈다.
4회 1사에서 나성범과 권희동을 연속 삼진으로 처리한 브룩스는 5회 선두타자 알테어까지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장식했다.
5회 1사에서 브룩스가 두 번째 위기를 맞았다. 강진성에게 좌중간 2루타를 맞은 뒤 박준영에게 이날 첫 볼넷까지 허용했다. 그러자 정명원 투수 코치가 마운드를 방문했다.
잠시 숨을 고른 브룩스는 김찬형과 마주했다. 이어 유격수 박찬호가 김찬형의 타구를 잡아 3루에 송구하며 급한 불을 꺼졌다.
좋은 수비에 박수를 보낸 브룩스는 4.2이닝 72구에서 시범경기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브룩스에 이어 김현준-박준표-김재열-고영창-이승재가 불펜에 투입돼 호투 릴레이를 펼쳤다.
특히 '사이드암' 박준표와 '루키' 이승재는 각각 5개와 6개의 공으로 삼자범퇴를 만들어내며 눈길을 끌었다.



브룩스

전날 삼성전에서 장단 12안타를 기록했던 타자들은 이재학을 선발로 내세운 NC 투수들을 상대로도 좋은 감을 보여주며 7-0 승리를 합작했다.
9번타자로 나선 박찬호가 0-0으로 맞선 4회초 2사 만루에서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결승타를 기록



박찬호

했다.
포수들의 타격 전장도 뜨겁다. 6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김민식이 5회 2사 1·2루에서 좌중간을 가르며 2타점 2루타를 장식했다.
5회 4번 최형우를 대신해 투입된 이정훈은 첫 타



이정훈

석에서 중견안타를 기록한 뒤 7회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좌중간 2루타를 날리며 멀티히트와 함께 세 타석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9명, 도쿄올림픽 국대 후보

KBO, 야구 대표팀 후보 154명 확정...6월중 최종 엔트리 발표

2020 도쿄올림픽에서 2008년 베이징 영광을 재현할 야구 대표팀의 후보 154명이 확정됐다.
KBO가 22일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사전 등록 명단을 발표했다. KBO는 지난 15일 KBO 기술위원회를 통해 KBO 리그 소속 선수 136명(FA 1명 포함), 해외 리그 소속 선수 4명 등 140명의 이름을 확정했다.
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추천으로 아마추어 14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 오버 페이스를 막기 위해 14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KBO는 최근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사전 등록 명단을 KBSA에 제출했고, 6월 중 최종 엔트리 24명이 확정된다. 24명은 KBSA에 제출한 명단에 들어있는 선수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 생활을 접고 SSG 유니폼을 입은 추

신수가 사전 등록 명단에 포함됐고 텍사스에서 빅리그에 도전하는 양현중, 최지만(탬파베이), 김하성(샌디에고), 박준(뉴욕양키스) 등 해외 리그 소속 선수 4명도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프로에 뛰어난 '루키'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KIA의 좌완 이의리와 강효종(LG), 장재영(키움), 김진욱(롯데), 이소현(삼성-이상 투수)과 내야수 나승엽(롯데)이 명단에 포함됐다.
KIA에서는 이의리와 함께 박준표-전상현-장현식-정해영(이상 투수), 김선민(내야수), 이창진-최형우-최원준(이상 외야수) 등 9명이 후보가 됐다.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선수다.
삼성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LG(16명), 롯데-두산(이상 14명), SSG-KT-키움-한화(이상 13명)-NC(12명) 순이다. /김여울 기자 wool@

류현진, 개막전 선발 도장 '황'

토론토 연습 경기 5이닝 5K...구단, 개막전 상대 양키스와 시범경기 피해

미국프로야구(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연습 경기에서 패투를 이어갔다.
류현진은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터니든의 토론토 스프링캠프 시설에서 열린 시뮬레이션 경기에서



등판했다.
캐나다 스포츠넷의 아드 즈웰링 기자 등은 트위터에서 류현진이 이날 5이닝 동안 공 77개를 던졌고, 안타 3개와 볼넷 1개를 내주고 삼진 5개를 잡았다고 소개했다.
지난 16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시범경기에서 4이닝 4탈삼진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낸 류현진은 4월 2일 정규리그 개막을 열흘 앞둔 토론토 투구 수와 투구 이닝을 계획대로 늘려갔다.
토론토 구단은 21일 필라델피아 필리스, 22일 뉴욕 양키스와의 시범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류현진이 연습 경기에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도록 일정을 짜다.
특히 양키스전은 철저히 피했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토론토와 양키스는 정규리그에서 19번이나 대결한다. 양키스에 전력을 노출할 이유가 없기에 토론토는 류현진을 아껴 연습 경기에 내보냈다.
4월 2일 양키스와의 정규리그 개막전 등판이 유력한 류현진은 다음 실전 등판에서 6이닝을 던지고 투구 수도 100개 정도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류현진과 개막전에서 대결할 것으로 보이는 양키스 에이스 게릿 폴은 이날 토론토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뽑아내며 1실점으로 호투했다. /연합뉴스



공기 났고 슛하러 가는 길 휴스턴 쿼커즈의 트라몬 마크가 21일(현지 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경기에서 러거스 스칼렛 나이츠를 상대로 레이업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올라 시카고대, 다시 한번 이번

102세 슈밋 수녀가 농구부 담당...NCAA 톱시드 일리노이대 제압

'102세 수녀님의 기도'로 무장한 로올라 시카고대가 올해 '3월의 광란'에서 다시 한번 이변을 일으켰다.
로올라 시카고대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뱅커스 라이프 필드하우스에서 열린 2021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디비전 I 토너먼트 중서부지구 2회전에서 일리노이대를 71-58로 물리쳤다.
로올라 시카고대는 지구 8번 시드 팀이고 일리노이대는 톱시드를 받은 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상 일리노이대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로올라 시카

고대가 13점 차로 이겼다.
경기에서는 19점을 넣은 캐머런 크루트워그, 14점씩 넣은 루카스 윌리엄슨과 마키스 케네디 등이 승리에 큰 역할을 했지만 미국 언론은 이 학교 농구부 담당인 진 돌로리스 슈밋 수녀에게 주목했다.
'진 수녀님'(Sister Jean)으로 불리는 이 수녀는 1919년생으로 올해 102세이다.
천주교계 학교인 로올라 시카고대에서 1994년부터 농구팀 담당을 맡은 슈밋 수녀는 선수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지내며 경기 시작 전에 기도하고, 경기가 끝나면 감독부터 선수까지 일일이 이메일로 편

지를 써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학교는 1985년 이후 33년이 지난 2018년 '3월의 광란'에 나왔는데 당시 예상을 뒤엎고 최종 4강까지 진출해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해 99세였던 슈밋 수녀와 이 학교 농구부의 사연이 알려졌고 특히 당시 로올라 시카고대는 1~3회전을 2점, 1점, 1점 차로 계속 이겨 속전 속결로 수녀님 기도발 아니냐는 농담도 나왔다.
이후 3년 만에 다시 '3월의 광란'에 나온 이 학교는 이번에는 지구 톱시드 학교까지 돌려세우며 다시 한번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슈밋 수녀는 올해 100세를 넘은 나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대회장인 인디애나폴리스로 향했다는 것이다.
로올라 시카고대는 4번 시드인 오클라호마주립대와 12번 시드인 오리건주립대 승자와 3회전을 치른다. /연합뉴스